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0  
Oct. 2015  
Vol.3 No.10

- 은혜의 강단
- 한해를 감사하며
- 교육부 소식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 성가대 헌신예배(밸리채플)

### "하나님 은혜 감사, 모든 영광을 주님께!"

10월 4일 밸리채플 주일 2부 예배는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러졌다. 밸리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 사랑성가대, 남성중창단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가 참여하여 20여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예배였다.

사랑성가대의 '그 이름 비길데가 어디 있나'를 시작으로 우렁찬 화음의 남성중창단이 '나를 택하신 주님'을 통해 감사와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다.

밸리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의 'You raise me up'의 연주 후 마지막 순서로 연합성가대의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의 찬양은 듣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이었다.

중창단 팀장 이광영 집사는 성가대 헌신예배를 준비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연합성가대로 중창팀이 참가하여 헌신예배에 참여했지만 몇달 전 15명으로 조직된 중창팀은 매주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다시 모여 1시간 30분을 연습으로 준비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더 나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총무 노재덕 집사는 "교회 창립 후 처음 드린 헌신예배를 담임목사님께서 이렇게 2부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 성가대헌신예배를 통하여 매년 기다려지는 성가대 헌신예배를 하자고 격려하셨고 저희 또한 걱정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헌신예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였다. <9면서 계속> | 공태용 기자 |



■ 조경관리국(벨리채플)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요즘 우리 주안에교회 벨리 채플이 전 보다 더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말하는 행복한 성도들을 자주 만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벨리 채플을 위해 숨어서 일하는 조경관리국 국장 김복남 안수집사와 국원인 김영도 집사를 만났다.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꾼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벨리채플 조경관리 사역에 같은 마음을 가진 김영도 집사가 합류했다. 놀랍게도 이 큰 벨리 채플의 조경을 관리하는 조경관리국의 인원이 딱 집사 2명이라는 것이다. 김복남 집사와 김영도 집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규 사역일로 정하고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회 전반의 조경관리 사역을 한다.

미국 이민 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김복남 집사는 벨리채 12구역 교구장이기도 하다. 같은 교구원이기도 한 김영도 집사는 김복남 사역국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복남 안수집사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 하십니다. 12교구 교구장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교구 가족을 돌보십니다.” 김복남 집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며 하는 일이 교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한다.

단지 2명의 국원으로 이 큰 벨리채플 조경관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복남 사역국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대로 말은바 충성하고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안에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고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자원 봉사자가 증가 되어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인원으로 벨리채플의 나무 가지치기, 잡초제거 등 조경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도 과중함이 분명하다.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여 아름답고 잘 지어진 성전이 조경과 더불어 잘 조화를 이루며 주안에교회 벨리채플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박창신 기자 |



■ 주차국(세리토스채플)



'파킹랏서부터 은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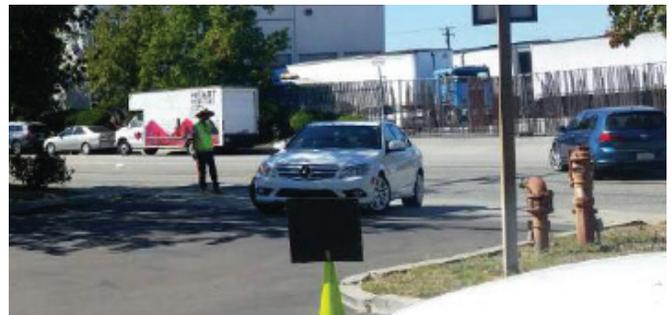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주안에 교인들을 위한 환영은 교회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세리토스 주차봉사국의 봉사는 주일 이른 아침 7:30분부터 셋업팀과 함께 국장인 이형국 안수집사가 주차 사역팀 물품들을 주차장 곳곳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시작된다. 성실하게 교회의 시작과 함께 주차 봉사를 섬기고 있는 세리토스 주차사역국장은 이형국 집사, 총무 홍성호 집사, 함께 주차봉사팀으로 섬기는 한중현, 김형태, 류인철, 심규남 집사께서 함께 주차 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두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세리토스 주안에교회 파킹랏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70세 이상 성도님들의 전용 파킹랏은 교회를 들어오는 첫 입구에서부터 준비되어 있다. 교회 건물 뒤편에는 유아를 위한 파킹랏으로 정해져 있다. 특별히 교회 건물 뒤편으로는 유아부가 있기에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주실 것과 함께 파킹랏이 흠으로 되어 있어 파킹 라인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를 파킹할 때 꼭 주차 사역팀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부탁하였다.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 파킹랏도 40여 대의 차량이 파킹할 수 있기에 성도들이 그곳에 파킹을 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안에교회 청년부는 젊은만큼 교회 건너 길가에 있는 건물 파킹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양보하고 잘 지켜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무는 성도들이 참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차량을 빼고 파킹랏을 나갈 때, 다른 차량에서는 아이들을 태우고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은혜가 이어지는 삶의 실천이다.

지속적인 파킹랏 질서가 이어지길 바라며 주안에교회는 파킹랏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시작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 이하나 기자 |





■ 벨리 학부모 모임



■ 세리토스 자녀교육 세미나

## 새해 임원진 선출

10월 셋째주 주일 교육국 정기 학부모 모임이 사역자분들과 부모님들의 참석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중고등부 사역자이신 성이삭 전도사님께서 부모님과 사역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그 연령대의 학생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나누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 사역자와 선생님들, 사역자(선생님들 포함)와 학생들, 사역자(선생님들 포함)와 부모님들 이 세 가지의 원활한 관계 형성으로 보고, 이를 위해 소통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아울러, 2016년 교육국에서 함께 섬기게 될 학부모팀 팀장, 부팀장님들 포함 임원진들이 선출되어 앞으로 진행되어 질 새로운 교육부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나누었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이 같이 나누고 참여하는 교육국을 위한 기도로 이번 학부모 모임은 마무리 되었다. | 김명자 집사(벨리 ICY 부장) |

## 어릴 때부터 소통하는 방법을

지난 9 월말, 드디어 세리토스채플에서 오랜 기간 계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선에서 상담가로 일하시는 구동환 박사님(Family Wellness Center)을 모시고 약 두 시간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요점만 말하자면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와 등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대화법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인격체로 대했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대화하고 소통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나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많은 시간 소통하기 보다는 명령하고, 말 안 듣는다고 소리치며, 때론 육신의 귀찮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의 부모 양육 타입은 4가지 부모 양육 타입 중에 방임형 보다는 독재형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요구와 기대가 많다. 난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키워줄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하는

대화에서도 ‘뭔가를 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지 마라’ 와 ‘잘해야 한다’ 가 주를 이루는 대화였던 것 같다.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한 세상을 읽는 눈은 넓어지고,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여유도 더 많이 생겼지만,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때때로 오르는 감정들을 볼 때마다 나의 한계가 보인다. 어릴적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형으로 받았던 한번의 큰 훈계가 내 속에선 어느덧 분노의 씨앗이 되어 자라서 나도 아이들을 훈계라는 이름으로 너무 일방통행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나의 가정이 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가까이가 보기를 기대 해 본다. 잘못된 경험으로 인한 미숙한 양육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결국에는 분노가 아니라 평안이 가득한 가정을 꾸려 나아가길 다짐해 본다. 그리고 주안에 모든 가정이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기’를 통해 깨어지고 금이간 가정이 다시금 회복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 권문상 집사(세리토스 IC KIDZ 부장) |

## 할로윈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릇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헌신하는만큼 거울인 우리를 보며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감당해가는 신앙의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교사와 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한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Connected) 사역과 교육의 현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10.31.2015 11am-5pm @valley chapel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 "상처받은 영혼 위로와 치유" 비전을 품고



이규화 전도사  
(밸리 ICY)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 받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고,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며 살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심리학부를 전공했고, 상담사로써의 마음이 늘 있었기에,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가서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사를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교를 나오고 인정받는 상담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박사학위도 해야하고 한국이 아닌 심리학과가 높이 인정받는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학비도 비자문제도 책임지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욕심을 은근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가지게 된 비전이었지만, 조금씩 하나님보다 이렇게 나의 비전을 우상 삼아 기대가 되고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우리 주님 자체를 자랑하는 모습보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자랑

하려 하고 내 정체성 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준비를 하던 중, 열심히 학교 문제, 장래 문제를 가지고 방향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주시지 않았고, 응답이 없어 답답한 채로 혼자 알아서 이래저래 계산하여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불고 계획대로 되어가는 대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는 길이라는 것 때문에 회한하게 학교에 붙은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상담학으로 대학원에 가게 되었던 바로 전 주일에 기도 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의 근심, 걱정과 욕심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게끔 하셨고, 신학생이 되고 전임사역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만 기쁘하게 하고 싶다면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부모님도, 돈도, 친구도, 내 스펙도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낭비처럼 보이는 무모한 사랑을 저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는 다르게 이기적인 나만의 방법으로 세상의 정상에 올라 편하게 복음을 전하

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획하느라 애썼습니다.

이제 더이상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얻은 저는, 예전처럼 뚜렷한 장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10년 20년 내 인생의 설계를 작성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2절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게 된 하루하루임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세상의 정상 위에서 전도할 수 있는 때를 바라며 그 때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알고 돕기를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Christ My All

It is said that “All things work for good to those who love Him –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Later in the chapter, Paul writes that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possibly ever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f I was to pick a verse that summed up my life, it would most definitely be Romans 8:28. In this short life I have lived thus far, I am grateful for all the good memories and hardships that God has placed in my life. Due to this, I have learned to trust and love God more. They were not easy lessons, but they were lessons that could never have been learned through school.

I was born in Baltimore, Maryland on New Year's Day. There were complications during my birth. Due to it being a holiday, my mother was asked to hold off on the delivery while I was crowning. While in pain and exhaustion, when the doctors arrived, they used a special tool to deliver me since she did not have any strength. According to some family members, my head was slightly bruised but none of the doctors and nurses said anything about it.

For the first seven years of my life, I had a pain in the back of my head - it would never go away. While I ate, slept, studied, or gone to school, I felt a horrible pain that would never leave me. I went to

multiple doctors and have searched for solution from different types of medicine.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he power and importance of prayer. Through this hardship, I was being led by God to hold onto Him. After several years, God answered my prayers by a series of events where it was undeniably done by the work of His hands.

I have devoted my life to the Lord ever since. I will continue to share the news of the Gospel and that Jesus is alive to hear our cry.



Sam Kim 전도사  
(세리토스 ICY)

■ 주안에 가족들 한해의 '감사노트'

## 축복된 만남... 예배의 기쁨...

늘 그렇듯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 중 하나는 축복된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 지기를 기도합니다.

박현동 목사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저의 아들과 딸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일찌기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집사(세리토스 채플)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만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본을 통해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으로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윤종화 장로 (밸리 채플)

'성경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는 교구의 모토 아래 모든 교구식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늘 변함없이 예쁜 테이블 셋팅과 식사로 섬겨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양승안 집사(세리토스 채플)

특히 올해는 힘들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먼저 순종했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한 해였음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할렐루야! 정혜욱 권사 (밸리 채플)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해가 질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김신실 권사 (밸리 채플)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란 말이 있듯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되돌아 보면 나의 천부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하지 었고제 같은데 어느덧 2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용수 장로 (밸리 채플)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며 믿음이 성숙해짐에 감사하며 나의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 청년부가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병훈 (코람데오 청년부)

금년 한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진이라 생각했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에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석 장로 (밸리 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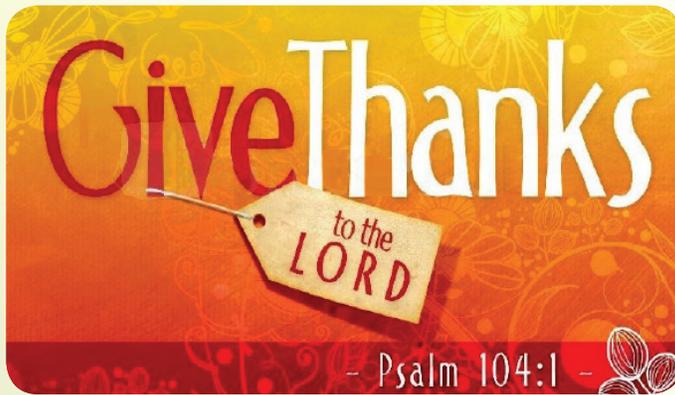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좋은 양식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승현 전도사

2015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많다. 그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어 이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감사된다. 정도영 장로 (밸리 채플)

2015 was a year filled with much blessings. I am thankful for the blessing of family. Connie and I celebrated our first anniversary as a married couple and Micah came into this world! I am thankful that both Connie and Micah are healthy. I am thankful that I got to witness many of the youth students mature this past year, where some are even co-laboring together as student leaders. This is our church's 3rd year and it's truly amazing to see the work a God has been doing in the hearts and lives of these young students!' 성이삭 전도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느끼며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집사 (세리토스 채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 하며 하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동기 부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것에 알맹이가 없고 폭풍과 시련, 가뭄의 고통이 있어야 껍대기 속 영혼이 여문다는 진리에 하루 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김헬렌 권사 (밸리 채플)

9교구 1구역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새 가족이 되신 황제니스 집사님, 추은경 집사님, 정경남 성도님의 신앙의 성장에 감사합니다. 박창신 집사 (밸리 채플)

늘 설례임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에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행보를 기쁘게 걸어 올

매일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조혜숙 권사 (밸리 채플)

주안에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옥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방걸 장로 (밸리 채플)

2015년 한 해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기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갑 집사 (세리토스 채플)



### “주안에” 2015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각종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서역국

문서서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서미숙, 서세건,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최민애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안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 주안에 가족들 한해의 '감사노트'

## 고난의 열매... 보호의 은총...

201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해 동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이현옥 목사

너무나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 어느덧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도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불평했던 순간들, 그 가운데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온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고 섬기는 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을 보며 기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유궁재 장로 (세리토스 채플)

I am thankful for the opportunistic place that I l've and to be able to grow as a person, I'm thankful for the good health God has provided for my family and most importantly, I am thankful for my salvation. Jasmine Cho (밸리 채플)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세희 집사 (밸리 채플)

본토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20여년 살았던 동부를 떠나 일 년 전, 이곳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합니다. 주안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조영일 집사 (밸리 채플)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희 집사 (세리토스 채플)

이번 한해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안에 교회를 통해 귀한 분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목사님을 통해 저희 가정에 매 순간 필요한 귀하신 말씀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우중, 이지현 부부 (밸리 채플)

올 한해도 온 가족이 주안에서 섬기고 순종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황중훈 집사 (세리토스 채플)

부족한 이에게 구역 리더를 맡겨주시고 사랑이 많은 구역원들 보내주셔서 교제 할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은태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 하게 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종성 집사 (세리토스 채플)

예배 준비팀(셋업팀) 으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웅 집사 (세리토스 채플)

I am thankful for my fellow EM members and ICY leaders. If it wasn't for them I honestly wouldn't



be here today. God has worked through them in miraculous ways and by supporting one another with God's amazing grace I found that joy in the Lord that I once lost. Joanne Lee (밸리 채플)

주안교회를 인도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메말랐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만난 2015년 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경빈 집사 (세리토스 채플)

올 한해도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류명수 집사 (세리토스 채플)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의 간증집이 한국에서 출간되기까지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드보라 권사 (세리토스 채플)

2008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던 가운데, 두 차례 기증 받을 기회마저 무산되어 결국 투석을 했던 나의 삶. 일 년 동안 투석한 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식을 받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 홀려 기적의 한 해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희 집사 (세리토스 채플)

너무나 빨리 지나버린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두웠던 내 삶에 빛으로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을 제 삶에 허락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솔 (코람데오 청년부)

지난 일 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 모든것이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순종하기까지 어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손길들을 예비하시어 봉사국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며 기뻐했던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섬기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은혜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정혜 권사 (밸리 채플)

매 해 신년 집회 때마다 올려드린 기도 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정소연 집사 (세리토스 채플)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한 해였던 2015년, 지난 2014년에 시작했던 풍요로운 삶을 3권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증을 나누며 나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감사, 함께 해주신 리더들이 있어서 힘이 되었던 감사,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두 달여 남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안장호 집사 (세리토스 채플)

| 정리: 이하나 기자 |

성경퍼즐  
정답

문제는 12면에

유	월	절			요	안	나
일		기	은	나			인
신	약	보	혜	사		장	성
	대	리	석	독	생	자	
		브			명		
	아	가	야	예	수	아	
사	론		일	영	표	이	삭
무		후		광		입	개
엘	리	사				다	리
						오	

■ 칼럼

## 지금을 산다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란 소유가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것이 한 날 이론에 불과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현실의 장벽 앞에서다. 하지만 행복은 소유보단 삶의 만족과 비례한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현동 목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묻기 전 지금 삶에 만족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좀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다시 묻고 싶다. 지금 삶에 만족하는가?

행복은 소유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때 누리는 삶의 여유라고 생각한다. 만족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곧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여유....

만족은 마음의 여유를 주고 마음의 여유는 우리 삶에 자신감을 준다. 약속시간에 10분 먼저 온 사람은 10분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삶에 만족 한다는 것은 편안하지 못할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때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비교 당하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그 첫걸음은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광야같은 인생의 버거운 길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거기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왜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여 있는가? 지금에 만족함이 없어서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 하는 사람치고 지금을 만족해 하며 사는 사람 드물고, 미래의 대한 장황한 포부를 말하는 사람치고 허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과거와 미래에 매여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선물에 감사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도 그 날이 오면 지금이다.

제임스 알렌이 한 말처럼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의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되 새겨 보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시 눈을 감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결도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사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은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흘러 보내고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은 겁내 하지 말고 지금을 감사하며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닐까?

■ 삶에서 만난 하나님

##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요즘은 자주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고개들어 하늘 한번 올려볼 여유도 없이 뛰고 달렸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주 하늘이 내게 온다.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 아이언맨처럼 자신만만하게 "까짓거~ 다 덤벼!"하다가도 닥치지도 않은 "내일은 어떨라나?"하며 불안이 엄습할 때면 하늘이 내게 온다.

마음먹은대로 생각한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세상 앞에서 나 스스로 의기양양, 기세등등하려고 무던히도 애썼건만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었는데 어깨에 올려진 짐이 버겁고 나를 바라보는 눈망울이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본다.

나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란걸,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걸, 내가 서 있는 땅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 아니라 3년의 가뭄도 이상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정말 40년이 걸릴 뻔했다.



난 가나안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줄 알았다. 40년 광야생활이 끝나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만사형통하겠거니 했지만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었다.

나의 수고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 던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려 애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뛰고 달리며 내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오늘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 어제로 보낸다. 그리고 나면 내일이었던 오늘이 어제로 보낸 오늘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슈퍼대중같은 세상은 나를 침노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나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난 다 잃어 좋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면..

오늘도 내 머리 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므로 인하여 나는 담대히 외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자주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 채은영 기자 |

■ 인터뷰 / 주안에 카페 '브니엘' 임아라 간사

"하나님 사랑하는 소통의 공간, 제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이글 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햇빛이 마치 열사의 것과 비슷했던 어느 금요일 이른 저녁 시간 기자는 브니엘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봉사하고 계신 임아라 간사님과 어렵게 맞춘 인터뷰 시간 때문이었다. 가장 한가할 거라고 예상했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몇 단골 교인분들이 자리를 잡고 뜨거운 바깥 날씨 못지않게 브니엘에 뜨거운 열기를 서서히 불어 넣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바쁘시네요!" 기자의 짹짹한 인사에 밝게 웃고 맞아주시는 간사님의 이쁜 미소에 바깥 더위로 인한 짜증이 언제였나싶은 기자도 웃었다.

Q **오픈하고 지금까지의 변화, 은혜, 그리고 소감이 있다면?**

변화가 있다면 메뉴가 맨 처음 오픈했을때보다 좀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커피 뿐만 아니라 음료수 종류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킥라면, 그리고 간단한 스낵종류들도 브니엘에서 드실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로인해 저 혼자 못하는 바쁜 시간엔 자원해서 도와주시는 집사님도 생겼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프트 카드도 생겨 교인분들에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브니엘에서 헌신하고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굳이 한 가지를 들자면 맨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언젠가부터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교인분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자연히 교회 밖 세상에서도 그런 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구요.

브니엘을 하면서 단골 교인분들을 볼때면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한 모습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결국 목소리 크신 분이 이기시긴 하지만요(웃음).

가끔은 서먹 서먹하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멀지않아 서로 챙겨주시고 화목한 분위기로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서로 하나님 얘기 하면서 소통할 수 있



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 정말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Q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글쎄요... 하루 하루 만나는 모든분들이 특별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 어린 꼬맹이들도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 고사리 손으로 동전을 한움큼 쥐고 와서는 원하는것 집어들고는 손을 짹 짹 펼쳐보이는 모습에 너무 귀여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Q **앞으로의 방향 및 각오가 있다면?**

제가 맨 처음 브니엘을 시작할때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브니엘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여지기를 바랍니다.

브니엘에서는 세상적인 애기보다는 예수님의 애기가 오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 자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단지 커피만을 드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드리고 싶은게 제 소망입니다. 영육간에 지친 성도님들이 맘 편히 커피도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 하루를 온전히 맡기며 저 스스로도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가 있는 편안한 브니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Q **브니엘이 생겨서 좋은 점들을 몇 몇 단골 교인분들께 물어보았**

교회 안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가격도 착하고... (이복희 권사)

금요일에 바빠오다 오면 저녁도 못 먹고 올 때가 있는데 예배 전에 간단한 식사(킥라면) 라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네요.

(김혜원 집사)

바쁜 와중에 굳이 커피 마시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윤세희 집사)  
교회 안이라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바로 옆에서 교제할 수 있어 좋아요. 바깥에서는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사라 집사)

성심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아라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주안에교회에서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인 브니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해본다.

| 박희정 기자 |

<1면서 계속>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구자형 집사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은혜스러운 행사에 같이 하게됨을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안에교회의 후원과 격려에 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뜻깊은 행사에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2부성가대 지휘자 정도영 장로는 주안에교회가 2년 반을 달려왔는데 성가대에서 한번도 헌신예배를 하지 못하여서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은혜 속에서 찬양연습에 임하였으며 연습기간동안 성가대원들 모두가 잘 따라왔고 이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대원들도 조인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사랑성가대 지휘자 황영옥 권사는 "55년 이상 성가대에서 봉사했지만 이번 사랑성가대와 같이 성가대 헌신예배에 참여한 것에 감격할 순간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 삶 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생업과 전도에 힘써요"

<플러튼 김선영 미용실 김영순 권사>

주안예교회 세리토스채플 10교구 2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김영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플러튼에 위치한 김선영 미용실은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도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의 70% 이상은 여성들인데 미용실에서 5분 정도 가다보면 한인마켓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맛집들이 있어 여성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의 미용실을 오픈 한지는 3개월이 되어 가지만, 미국 온지 벌써 20년이 되어가는 김 권사님의 이민 생활의 시작은 미용이었다.

"낮은 땅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쉽지 않았던 지난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 늘 감사하며 오늘도 미용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원한다." 고 하셨다. 이민자들은 모두 경험해서 알듯이 이민 생활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했던 김 권사님의 간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

1976년에 결혼을 해서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미용실 원장의 권유로 미용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안 식구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러 고민 끝에 결정하고 시작한 미용은 어느덧 김 권사님을 미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였기에, 미용실을 운



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쁘고 보람이 있으신다.

한국서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미용에 대해 경험이 없이 시작 한 김 권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겪게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출석하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김 권사님의 신앙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신 은혜들이라 하신다.

김 권사님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큰 갱 단에 가입해서 마약을 하며 흑암 속에 사는 것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은 찬양 전도사로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고 고백했다. 그래서 미용실은 곧 권사님의 전도의 사역 현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긴 세월 힘겹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을 때 주안예교회 담임목사님을 통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주님과 의 첫 사랑을 회복되었다고 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기도드린다.

김 권사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되길 축복한다.

| 이하나 기자 |

미용실 주소: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 전화: (714) 228-9001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교/우/비/즈/니/스



PHOTOGRAPHER  
**SCOTT KIM**  
WWW.SCOTTKIMSTUDIO.COM  
213.810.4000

MEMBER OF HYL PRODUCTION  
WWW.HYLPRO.COM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 현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 ■ 미서부 5대 캐년을 찾아서 #1 그랜드캐년



## 아득한 시간여행, 그 장엄함과 경이로움에...

가을에 들어가면 마음 걸음이 분주하다. 미서부의 대표적 여행지인 5대 캐년을 이 가을에 만나 볼 욕심에 가슴이 들뜨다.

LA 에서 Arizona 주에 있는 Grand Canyon National Park(이하 GRCA 라 요약한다) 까지 단숨에 달려 가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지만 오늘 해 안에 공원 내의 Maswik Lodge 까지 들어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LA를 출발 I-5 Barstow를 거쳐 I-40 선상의 Kingman 을 지나 Williams 지역에서 북상하여 GRCA 에 이르게 되는데 I-5와 I-40 사막의 도로들조차 그 황량함이 설레움으로 반갑다.

이른 새벽 5시부터 부산하게 준비해서 출발했건만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공원의 남쪽 입구를 통과 드디어 첫 숙박지인 Maswik Lodge 에 여장을 풀고, Visitor Center 를 방문하여 그랜드캐년의 역사와 지질형성 과정들을 자료와 영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깊숙한 캐년의 자태들을 Rim 가장자리에서 내려다 보면 이제껏 가능했던 '크다'의 개념들을 새로이 정리해야 할 정도이다. 장엄한 모습, 웅장한 그 모습들은 태고의 역사를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듯 하다. 지척의 거리에 Yavapai View Point 와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지구의 역사 약 40억년의 세월 중 16억8천만년 전에 형성되게 된 그랜드캐년의 역사의 흔적들이 자료로 남아있다. 특히나 콜로라도 강 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Phantom Ranch 의 나무숲들과 노새들의 쉼터, 캠핑그라운드 등이 한눈에 들어 온다.

여행 첫날의 소중함을 간직한채 룯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밤하늘의 별무리들, 다람쥐 노니는 소리, 새들의 아침 문안 인사, 사슴 가족들의 평화로운 아침나들이, 상큼한 파인향 가득한 숲속의 아침 냄새,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사랑스런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째의 아침은 긴장으

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스펙터클한 캐년의 속살을 들여다 보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새벽 3시쯤 일어나 트레킹 도중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점검하고 행동식 및 여분의 물을 준비하여 트레일헤드가 있는 S. Kaibab (인디언 말로 '거꾸로 누운 산' 이란 뜻.)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곳은 Visitor Center 에서 Shuttle Bus 를 이용한다(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트레일헤드에 도착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드디어 새벽 5시 드디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트레킹 코스 1위에 해당하는 GRCA 트레킹을 시작한다. 보통의 경우처럼 오르막을 올라 산을 등정 한후 내리막으로 산행을 마치는것이 아니라, 이곳은 '거꾸로' 내리막을 먼저 산행한 후 오르막을 오르는 아주 어려운 코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트레커들의 선망의 대상지인 곳이다.

트레일의 고도편차는 수직 1마일(1.6 km)이다. 캐년의 역사가 16억8천만년전이라 했으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00m 하강할 때마다 1억년 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S. Kaibab 내리막 산행은 약 9마일 정도로 4-5시간이면 족하다. 내리막의 첫번째 View point 는 역시 Ooh Ahh Point 가 제맛이다. 캐년의 내리막 시작점으로부터 Switchback(지그재그길) 으로 시작하여 협곡의 웅장함을 어렵잡아 가다가 이곳에 도달하면 갑자기 나타난 캐년의 그 넓고 웅장한 모습에 입을 닫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모두다 함성을 외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후 30여분정도 하산을 하게 되면 첫번째 쉼터인 Cedar Ridge 에 이르게 된다. 내리막 4시간째 드디어 콜로라도 강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와 선다. 강이 보일즈음 작은 터널을 지나 Suspension Bridge (일명 블랙 브릿지라 부름) 를 지나 Phantom Ranch 가 있는 캐년의 제일 밑바닥에 다다르게 된다. 콜로라도의 강물은 유속이 제법 날카

롭고 빠르다. 강가에서 내리막으로 힘들어하는 발가락들을 달랠겸 강물에 잠시 발을 담가본다. 마치 얼음물을 녹여 흘러 보냈듯 살을 안다. 얼마간 족욕을 마친후 이제는 오르막의 험난한 여정을 즐기러 올라가야 한다.

오르막길은 약 11.5마일 대략 7-8 시간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이 트레일 역시 Switchback(지그재그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오르막이다. 7-8시간을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야 하므로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오르막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Suspension Bridge (이번에 실버 브릿지라고 일컬음) 를 지나게 된다. 바람과 사람의 발걸음에 흔들거리는 실버브릿지에서 쾌속으로 흐르는 콜로라도강의 위풍당당함 또한 자랑 삼아야 할것 같다.

브릿지를 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가의 모랫길을 통과해야 한다. 30분 남짓 지나는 이길이 왜 이리 어려운지, 이미 하산 길에 서서히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해변가 모랫길이라니... 이내 겨우 모랫길을 통과하여 이제는 그 옛날 인디언들이 이 협곡 속에서 살면서 농장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며 살아 갔던 삶의 터전이 남아 있는 '인디언 가든'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에 도착하여 준비해온 행동식으로 허기진 속을 달래려한다. 이제 앞으로 6마일 정도 오르막을 오르면 된다. 오르막과 싸우지만 사실 좌우의 협곡의 절벽들은 우리를 반기고 있다. 오랜 역사의 한 모퉁이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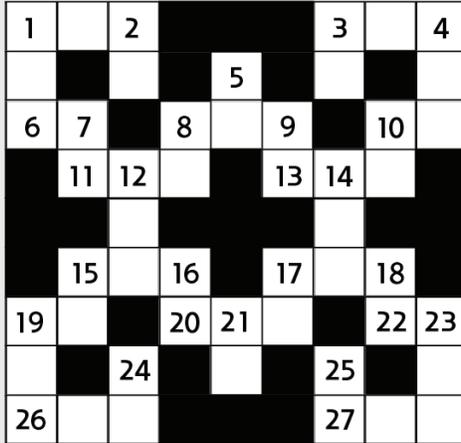
몸과 마음이 지쳐갈 즈음 3마일 Rest House 의 팻말이 우리를 반기는 듯 하다. 이제 이렇게 몇고개 구비들을 돌아 올라가 작은 터널 2개를 지나게 되면 GRCA 브라이언트 엔젤 트레일 여정을 마치게 된다.



윤성문 집사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출 12:11)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서 물질로 예수님을 섬긴 여제자(눅 8:3)  
 6.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기록을 적은 27권의 성경책  
 8. "위로자, 도와주시는 이"란 의미로 성령의 다른 이름(요 14:16)  
 10.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11.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붉은색 또는 자주색의 암석(대상 29:2)  
 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를 주셨으니(요 3:16)  
 15. 고린도가 수도였던 로마의 도시(행 18:12)  
 17. 스펀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된 인물(대상 24:11, 느 7:7)  
 19. 지중해 동쪽 연안의 아름다운 평야(아 2:1)  
 20.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해 시각을 측정하는 장치(왕하 20:11)  
 22.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창 17:19)  
 26.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바알 송배를 근절시킴(왕상 19:19)  
 27. 바사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재건을 도와줌(스 6:1)
- <세로 문제> 1.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  
 2. 유월절, 칠칠절, 등의 총괄적 이름  
 3.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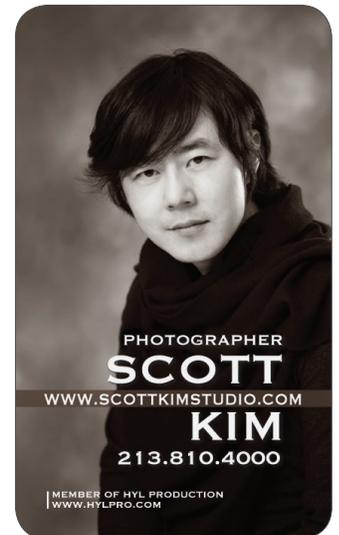
4.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눅 7:11)  
 5. 너의가그( )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7. ( )가 바블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  
 8.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두( )이 달려 있었다(출 28:21)  
 9. 처음에는 사울을 쫓다가 후에 아론의 집 근장관 22명과 함께 다윗을 쫓은 예루살렘 대제사당(대상 12:28)  
 10. 애굽에 내린 열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의 죽음이었다(출 11:5)  
 12. 브엘의 딸, 이삭의 아내(창 24:67)  
 14.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요 4:14)  
 15. 모세의 형, 이스라엘 첫 대제사장(출 6:20)  
 16. 이스라엘의 사사로 22년간 다스린 길르앗 사람(삿 10:3)  
 17. 상징, 표상, 미리 보여줌  
 18. 아간의 범죄로 함락에 실패했던 성(수 7:2-)  
 19.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인물(삼상 10:1)  
 2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23.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여리고의 세리장(눅 19:2)  
 24. 대를 잇는 아들(롬 4:13-14)  
 25. 잘못된 사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삿 11:1-11)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정답은 7면에>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교/우/비/즈/니/스



PHOTOGRAPHER  
**SCOTT**  
 WWW.SCOTTKIMSTUDIO.COM  
**KIM**  
 213.810.4000  
 MEMBER OF HYL PRODUCTION  
 WWW.HYLPRO.COM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벨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